

지역 소식통

고창군, 뱀장어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고창군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뱀장어 양식어가를 위한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3일) 심원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뱀장어 양식어가 대상으로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어업인 설명회를 열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뱀장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이다. 한국-중국 FTA 발효일 이전(2013년 12월20일)부터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에 판매해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어업인 개인 당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당 최대 5000만원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휴가철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펼쳐

정읍시가 4일 제1고 앞 사거리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일상 속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일상에 주의 요소를 신고 등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과 참여자들은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음주 섭취 후 물놀이 자제, 충분한 휴식 취하기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홍보했다. 또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심덕섭 고창군수, 국회 찾아 주요 현안 반영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가 폭염 속에서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바빠 움직이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고창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앞서 심 군수는 지난 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출장 등 이번주 들어 벌써 2번째 국가예산 활동이다. 그만큼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지로 임하고 있다.

이날 심 군수는 고창 출신 안구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과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창군 동행 의원인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을 잇따라 면담하며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 요청했다.

고창군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현재 전라남도와 유치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유치(320억원)'와 '고창갯벌 식생조립사업(150억원)', '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정주 환경을 위한 상하수도 정수해 생 활권 종합정비사업(342억원)', '고창읍(저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58억원)' 등이다.

특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공모

를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은 생태관련 국립시설이 전무한 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치 당위성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한 장점 등을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부 예산안 확정 전은 물론 확정 후에도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내년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방문 이후에는 지난 1일 화제가 발생한 고창 서울장학숙을 방문차 현장을 둘러보고 조속한 현장 정리를 지시했다.

곧바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으로 이동해 전라북도의 협조로 임시 입사한 고창학생을 면담하며 위로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결식아동 예방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협약체결

정읍시, 우리 아동 50명에 1년간 1만3200식 도시락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사회공헌 기관·기업 등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4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행복나래와 SK스토아, SK증권 행복도시락 협동조합, 정읍시 여성이용소방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행복 두 끼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행복나래 임은미 실장, SK스토아 김정우 경영지원그룹장, SK증권 이창용 ESG 부문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 김성순 여성 이용 소방대장, 김용복 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행복 두 끼 프로젝트'는 결식 우려 아동이 하루에 최소 두 끼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멤버사 기업, 일



정읍시가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사회공헌 기관·기업 등과 손을 맞잡았다.

반사민이 함께 협력해 국내 아동의 결식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는 활동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캐니 지원이

필요한 아동 50명에게 약 12개월간 총 1만3200식의 도시락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역경제 살리기 최우선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융자지원, 지역화폐 발행, 공제 가입 카드 수수료 지원 등 49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주민들과 지역상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고창사랑상품권이 올해 398억원 가량 발행된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전 군민에게 제

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발행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상품권 환전율이 평균 90%에 이르는 만큼 의지로 유출됐던 지역자금의 선순환 효과가 특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3억5458만원)도 추진된다. 고창 관내 6개 시장(고창읍, 상하 해리, 무장, 대신, 흥덕)의 시설 개보수, 장비기도유미, 화재공제, 안전 점검 및 방역 소독, 문화행사 등이 집

중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 걸어지는 경기침체로 시름이 깊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마련된다. 군은 10억8000만원 상당의 소상공인 사업비를 편성했다.

운전자금 융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물품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노란우산공제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으로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노형수 고창부군수가 4일 고창갯벌축제 행사장과 관내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 강조

노형수 고창부군수, 고창갯벌축제 행사장·해수욕장 안전점검

노형수 고창부군수가 4일 고창갯벌 축제 행사장과 관내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노 부군수는 갯벌축제 메인무대와 먹거리부스 내 안전점검 설치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 행사관계자와 안전관리요원,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119안전센터 근무자를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창군은 2개 해수욕장(구시포, 등호)에 모두 1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해경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 안전관리센터 내에 종합상황실, 119안전센터를 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수욕

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형수 부군수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관광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4차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 갯벌축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고창 민들갯벌체험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갯벌로 들어가 동족을 깨는 '갯벌체험 활동',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를 맨손으로 잡는 '미끌미끌 풍천장어 잡기', 해양 환경공간에서 운영하는 '해양 생태교육 이동교실' 등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준비돼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고품질 양파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22년 부안해풍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00백만원 중 130백만 원을 순 균비로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재배면적 1,000㎡ 이상인 양파 재배농가로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농지에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재배농가는 계약한 관내 농협 및 유통조직을 통해 읍면에 신청하고, 미계약재배농가는 자율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단지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물가상

승 등으로 인해 인건비 및 농자재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1ha당 최대 130만원 종자대를 지원하고, 신청면적은 5ha까지 신청 가능하며 양파재배 농가의 경영비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서해인의 해풍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며 저장성이 좋은 부안 양파를 생산하는 농가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부안군 주 소득작목 중 하나인 양파의 고품질화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Advertisement for 'Earth's Hottest Spot' featuring a polar bear and text about global warming and energy conservation.